

관리분야	문화관광					추진상황		정상추진		
	성격별		기간별(임기내)			사업비별		재원별		소요사업비
사업구분	신규	계속	완료	착수	기반조성	예산	비예산	국도비	군비	
			○	○			○		○	○
	3,000백만원									
사업주체	국가	도	자체	민간	사업기간	2023~2026			팀 장 이창현(☎1808) 담당자 노운찬(☎1255)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서해안의 자연경관·역사·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관광도로를 통해 연결, 뷰 포인트 등 관광 명소화하여 관광객 니즈에 부합 추진
- 사업대상 :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남당항⇔어사항)
- 사업내용 : 해안 관광도로(선셋전망대) 조성 L=1.0km

□ 그동안 추진실적

- 2021. 11.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반영
- 2023. 2.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2023. 3. ~ 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023.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4. 3. ~ 6. :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착수 및 완료
- 2024. 8.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4. 9. :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완료
- 2024. 10. : 공사 및 용역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2025. 6. : 공사 및 용역 준공
- 2026. ~ : 시설 관리 및 관광홍보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 후
추진계획	· 2023년 국가 균형발전특별 회계 예산 신청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공사 준공	· 시설관리 및 관광 홍보 추진	· 시설관리 및 관광 홍보 추진

□ 연차별 투획계획

○ 사업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3,000	-	-	150	1,500	1,350	-	-

○ 재원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000	-	-	150	1,500	1,350	-	-
국 비	1,000	-	-	75	750	175	-	-
도 비	-	-	-	-	-	-	-	-
군 비	2,000	-	-	75	750	1,175	-	-
기 타	-	-	-	-	-	-	-	-

□ 연차별 재원 확보 및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계		임기 중 확보 및 집행내역									
	확보	집행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소 계	1,650	1,102	-	-	150	150	1,500	952	1,350	-	-	-
국 비	825	551	-	-	75	75	750	476	175	-	-	-
도 비	-	-	-	-	-	-	-	-	-	-	-	-
군 비	825	551	-	-	75	75	750	476	1,175	-	-	-
기 타	-	-	-	-	-	-	-	-	-	-	-	-

□ 공약달성 확인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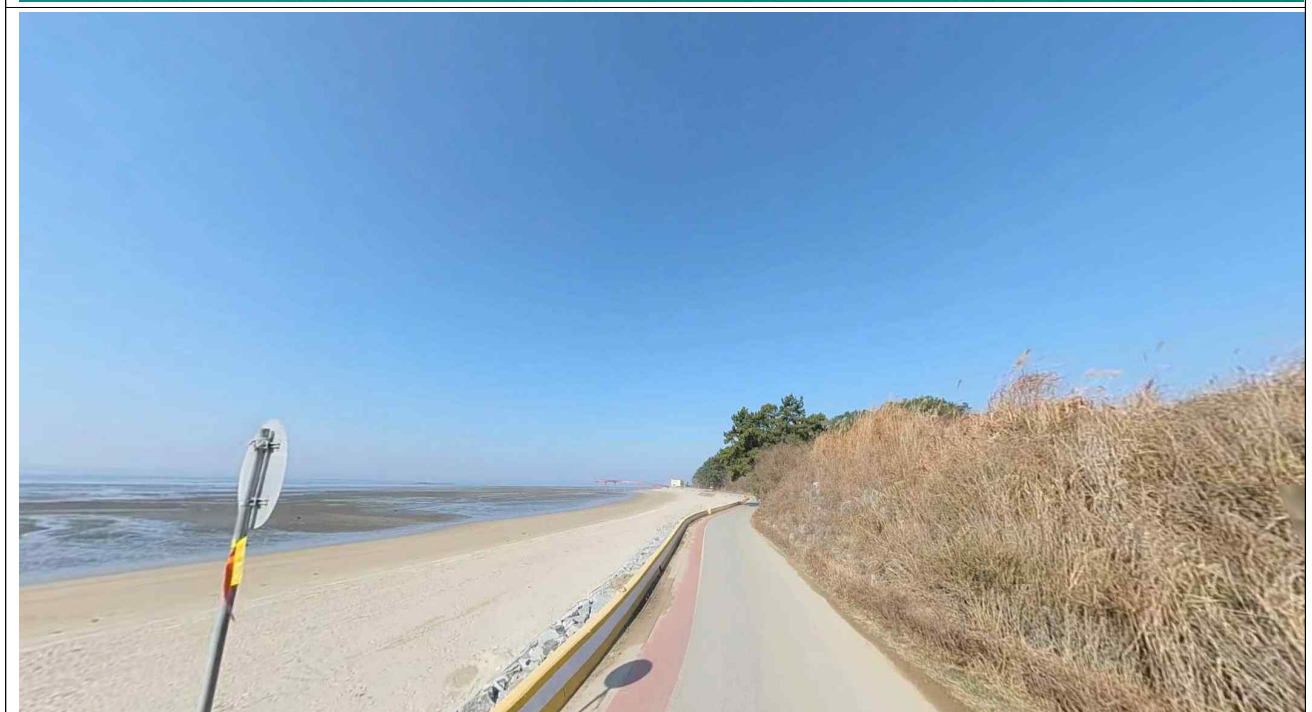
구분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후
계획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공정률	100	10%	20%	50%	100%	-	-
실적				10%	20%	50%	-	-	-
달성				달성	달성	달성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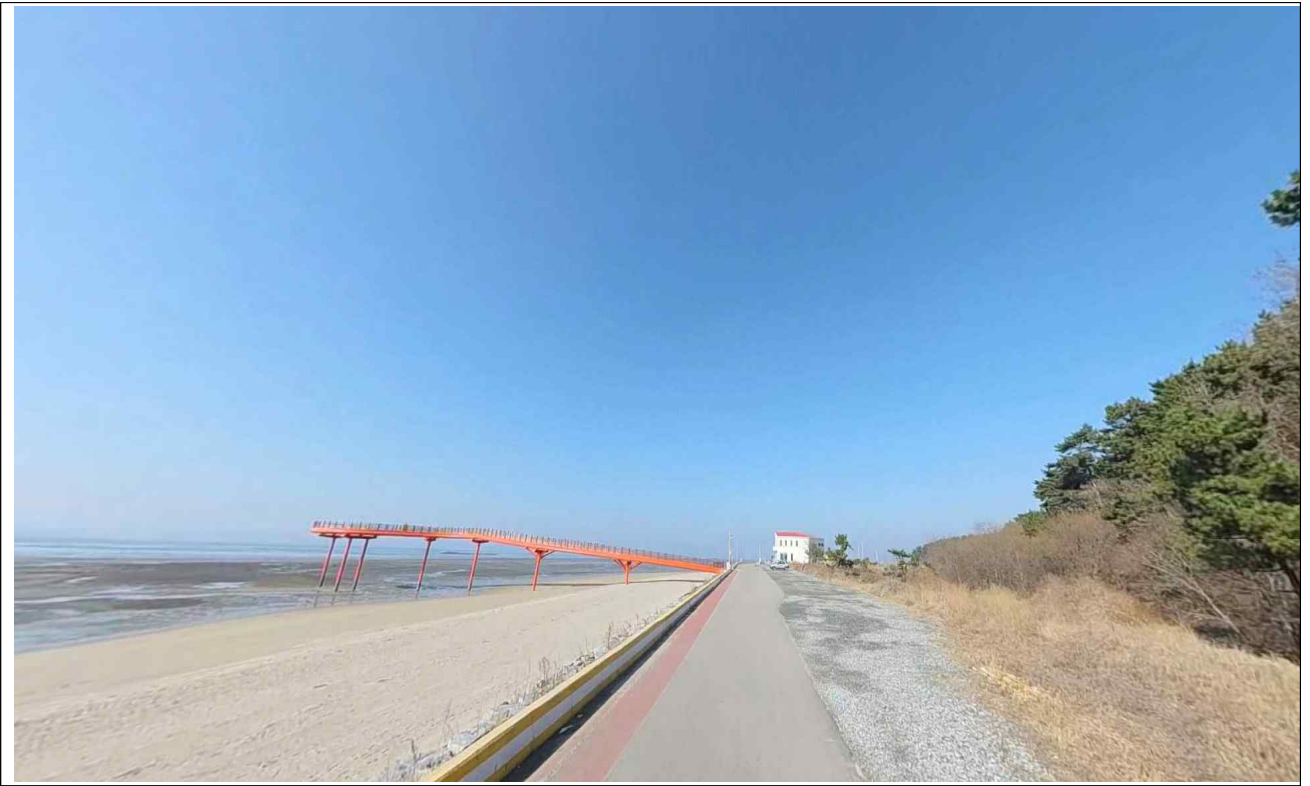
□ **군민 소통 현황**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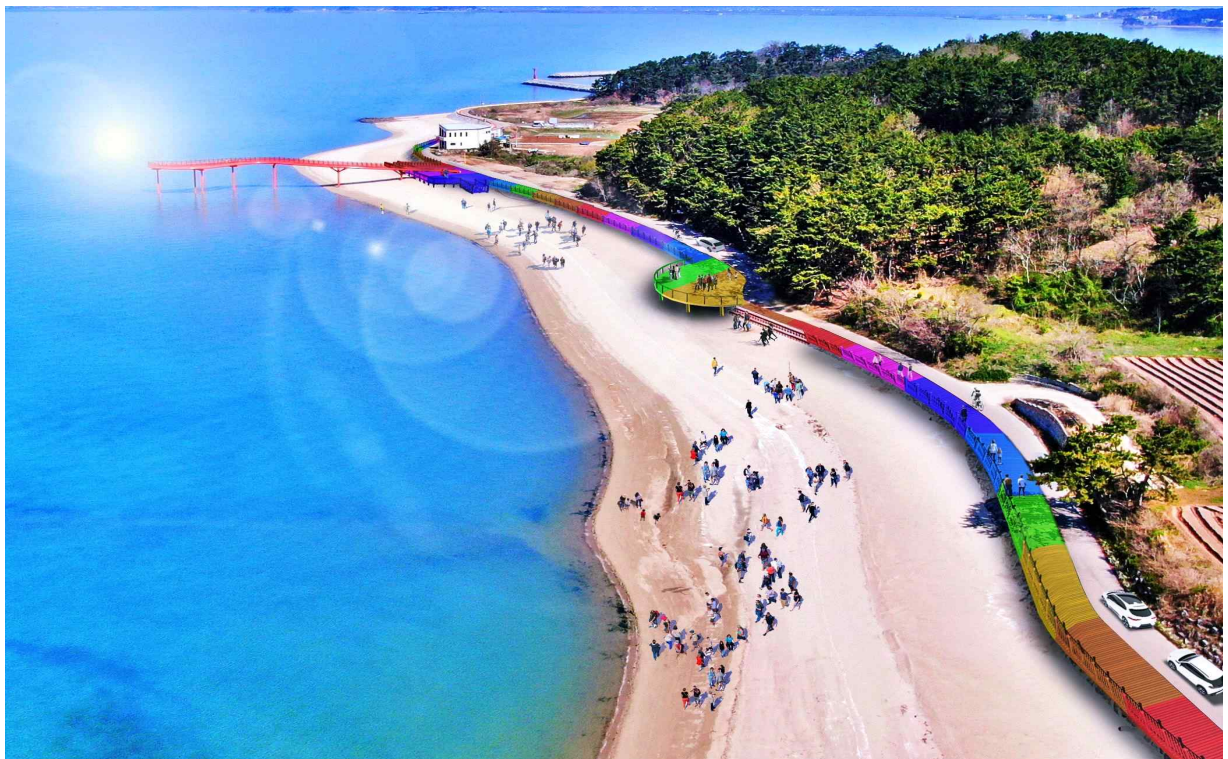
설명회·공청회	민간전문가 등 자문	언론·방송보도	설문조사	기타
1	1	3	3	3

□ **증빙자료 첨부 (현장 사진 및 위치도)**





□ 증빙자료 첨부 (조감도)



2023년 02월 03일 (금)
05면 지역

대전투데이
홍성군 남당항, 올봄부터 물놀이 및 그물놀이 시설 개장 · 해양공원과 축제광장 완성 눈앞

서해안 명품 해양관광지로 새롭게 도약

홍성군 대표 관광지인 남당항이 명품 해양관광지로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홍성군은 대하, 새조개, 바다 송어 등 신선한 해산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남당항에 사업비 683억을 집중 투자하여 해양공원과 축제광장 조성, 다기능어항개발 사업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갖춘 맛과 멋을 겸비한 서해안 명품 해양관광지로 탈바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남당항 해양공원과 축제광장(가칭)은 사업비 130억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체험형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서해안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즐길 수 있는 해양권 최초의 넷트 어드벤처그물놀이 시설을 도입했다.

이에 더해 남당항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며 힐링을 즐길 수 있는 55,000㎡ 규모의 공원과 광장을 조성했고, 올해 5월에는 어린이 놀이공원, 트릭아트존 조성, 상징 문자 조형물, 주요 진입도로 및 인도 확장 등 놀이 시설과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은 관계지는 관광객들의 사로잡기 위한 해양공원과 축제광장은 올해 봄 개장할 예정이다며, '남당항 해양공원 및 축제광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남당항 주변에 매력적인 테마 시설을 도입하여 새로운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개장 시기에 맞춘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전국 관광객들을 대료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남당항은 뛰어난 먹거리에 비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여 높은 인지도에 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짧고 해산물 먹거리 중심의 관광지 특성상 여름철 비수기를 맞이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군은 기존 관광 개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관광개발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전략 개발사업을 구상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관광객 유치에 발산할 공모 신청과 총 70억원 예산을 확보, 야간경관 명



소화 사업과 서해안 관광도로로 조성사업을 통해 인근 관광자원인 남당항, 어사리 노을공원과 남당 노을전망대 등 주변 자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야간 관광객 유치로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들이 단계별로 완성되면 차별화된 매력을 확보하여 남당항에 앞으로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해안 대표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남당항이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역의 관광 여건과 개발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홍성군관광진흥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자원의 집중 투자, 관광지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홍성군 관광개발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23.3 X 19.2 cm

2023년 02월 03일 (금)
16면 종합

충청타임즈

홍성 남당항 서해안 명품 해양관광지 탈바꿈

**봄부터 물·그물놀이 시설 개장
해양공원·축제광장 완성 눈앞**

홍성군 대표 관광지인 남당항이 명품 해양관광지로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은 대하, 새조개, 바다 송어 등 신선한 해산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남당항에 사업비 683억을 집중 투자해 해양공원과 축제광장 조성, 다기능어항개발 사업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갖춘 맛과 멋을 겸비한 서해안 명품 해양관광지로의 탈바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조성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남당항 해양공원과 축제광장(가칭)은 사업비 130억을 투자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체험형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서해안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즐길 수 있는 해양권 최초의 넷트 어드벤처(그물놀이 시설)를 도입했다.

이에 더해 남당항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며 힐링을 즐길 수 있는 5만5000㎡ 규모의 공원과 광장을 조성했고, 올해 5월에는 어린이 놀이공원, 트릭아트 존 조성, 상징 문자 조형물, 주요 진입도로 및 인도 확장 등 놀이 시설과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남당항은 뛰어난 먹거리에 비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해 높은 인지도에 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짧고 해산물 먹거리 중심의 관광지 특성상 여름철 비수기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군은 기존 관광 개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관광개발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전략 개발사업을 구상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 선정돼 총 70억원의 예산을 확보,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사업을 통해 인근 관광지인 남당항, 어사리 노을공원과 남당 노을전망대 등 주변 자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야간 관광객 유치로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용록 군수는 "남당항이 서해안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성 오세민기자
ccib-y@ccetimes.kr
20.6 X 12.3 cm

2023년 02월 03일 (금)
12면 지역

大田日報

남당항 '서해안 명품관광지'

**올해 남당항 해양공원·축제광장 마무리
인근 관광자원과 접근·연계성 강화 추진**

[홍성] 홍성군은 관내 대표 관광지인 남당항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대하, 새조개, 바다송어 등 계절별 신선한 해산물의 특산지로 알려진 남당항에 사업비 683억 원을 집중 투자해 해양공원과 축제광장 조성, 다기능어항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남당항 해양공원과 축제광장(가칭) 조성에는 사업비 130억 원이 투자됐다. 시

설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체험형 음악분수를 설치하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서해안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즐길 수 있는 그물놀이 시설을 도입했다.

군은 남당항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5만 5000㎡ 규모의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올해 5월에는 어린이 놀이공원, 트릭아트존, 상징 문자 조형물, 주요 진입도로와 인도 확장 등을 완공할 예정이다.

남당항은 뛰어난 먹거리에 비해 볼

거리와 즐길 거리와 같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됐다.군은 이번 투자로 기존 관광 개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총 70억 원 예산을 확보해 야간경관 개선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사업 추진으로 남당항, 어사리 노을공원, 남당 노을전망대 등 인근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들이 단계별로 완성되면 차별화된 매력을 확보해 남당항에 앞으로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서해안 대표 관광벨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신영 기자
17.4 X 12.3 cm

□ **공약 변경사항**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비 고
3-13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000백만원→ 3,000백만원	24. 11.	공약이행 평가단 의결